

필리핀 콘텐츠 산업동향

2022년 03호

2022년 필리핀 패션시장 현황



필리핀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 INDUSTRY TREND OF THE PHILIPPINES

2022 년 3 호

구분(장르)	제 목	Key Word
심층이슈	▶ 2022년 필리핀 패션시장 현황 1. 2022년 필리핀 섬유·봉제산업 현황 2. 2022년 필리핀 패션시장 개요	섬유·봉제 섬유쿼터제 산업발전로드맵 패스트패션 한류 모델 우끼이우끼이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배포 | 2022.08.17



심층이슈

KOCCA

I. 2022년 필리핀 패션시장 현황

작성순서

1. 2022년 필리핀 섬유·봉제산업 현황
2. 2022년 필리핀 패션시장 개요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개요: 2022년 필리핀 섬유·봉제산업의 해외수출액은 약 15억 달러(약 1조 9,6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00년대 초반에는 전체 수출액이 34억 달러(약 4조 4,54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섬유쿼터제의 폐지로 현재 수준으로 축소. 섬유·봉제산업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산업으로 실업률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제조업 기반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급하고, 국영 R&D 기관을 운영하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낮은 인건비 수준과 물류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필리핀은 섬유·봉제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다운스트림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빠른 확장이 어려움. 2019년 필리핀 상공부는 국내 섬유·봉제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2029년까지 전 세계 10위 섬유·봉제산업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음.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이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여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의류 완제품의 수입 폭증으로 이어져 섬유·봉제 분야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필리핀 국내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선호하는 디자인을 잘 파악하여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웃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로 진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필리핀 국내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은 한류 셀러브리티를 적극적으로 활용.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반인 대상의 중고의류제품 판매는 현재 필리핀 전역으로 퍼지면서 국내 의류제조 및 의류소매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하고 있으며 섬유·봉제산업 발전 로드맵에서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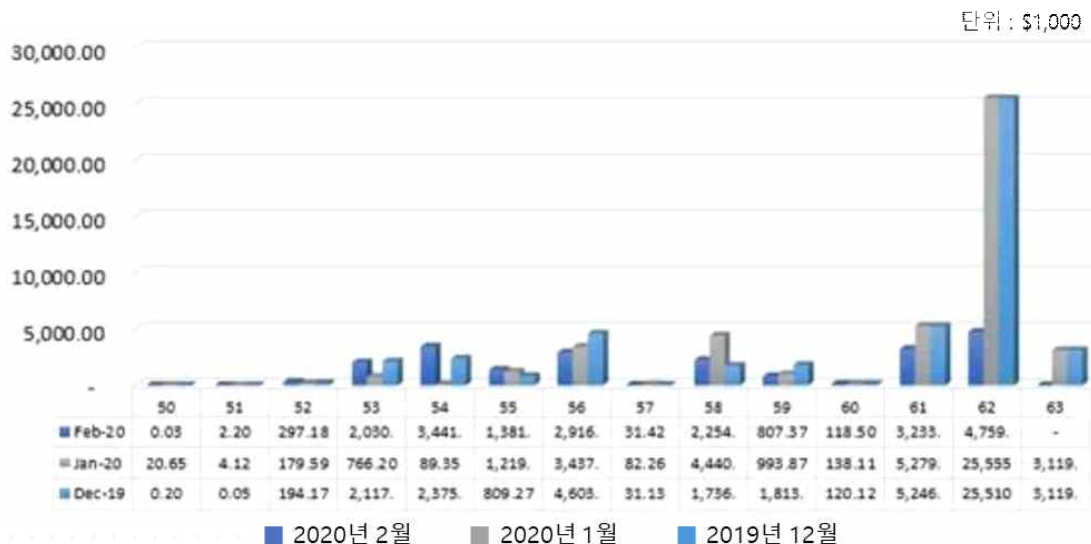
1 2022년 필리핀 섬유·봉제산업 현황

>>>

1. 필리핀 섬유·봉제산업 현황

- 섬유·봉제산업은 노동집약형 제조업으로 인구가 많은 필리핀에 적합한 산업으로 2022년 전체 수출액은 15억 달러(약 1조 9,650억 원)¹⁾에 이를 것으로 예상. 이는 2021년 1억 520만 달러(약 1,375억 원) 수출액보다 42% 상승한 금액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가에서 공급망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며 반사 이익을 얻었음.
- 필리핀은 2005년 다자섬유협정(MFA)²⁾ 철폐와 함께 섬유산업의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면서 수출 중심의 봉제산업이 중국으로 점차 옮겨가면서 침체를 겪어왔음. 필리핀은 다자섬유협정의 주요 수혜 국가 중 하나로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필리핀 섬유·봉제산업은 쿼터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 2005년 이전에는 연평균 24억 달러(약 3조 1,440억 원)에 이르렀던 섬유·봉제산업의 대외 수출액은 쿼터 폐지와 함께 크게 줄어들었으며 필리핀 전체 수출액에서 섬유·봉제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에는 4%까지 급감.

HS코드 별 필리핀 섬유/의류 수출액 (2019년 12월 - 2020년 2월)



[표 1] 2019년 12월 ~ 2020년 2월 필리핀 섬유·의류 수출액

출처: TexPro 2020년 필리핀 섬유부문 수출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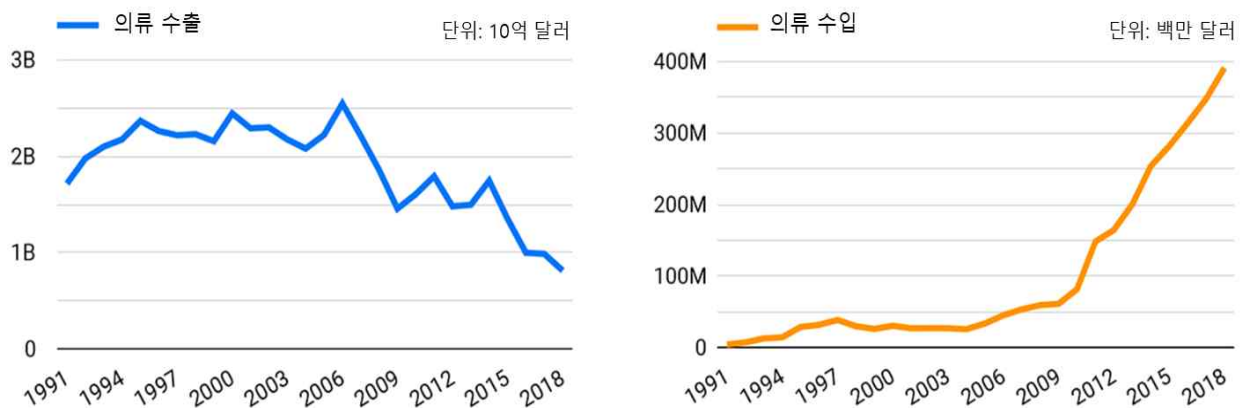
- 1995년에는 섬유·봉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85만 명에 이르렀으나 쿼터제 철폐 직후에 15만 명의 일자리가 즉각적으로 사라졌으며 2014년까지 57만 명 수준으로 감소. 2020년 섬유봉제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49만 3,000명 수준이며 이 중 여성의 비율이 69.4%를 차지. 대규모 인구를 고용하고 있는 섬유·봉제산업 공단은 주로 메트로마닐라(NCR, *National Capital Region*)를 포함하여 마닐라를 둘러싼 칼라바르손(Region IV-A), 센트럴루존(Region III) 지역에

1) \$1달러 = 1,310원 (2022년 7월 22일 환율 기준)

2) Multi Fibre Arrangement(1974~1994년), 섬유 및 봉제의류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국이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수량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다자간 협정

분포. 필리핀 섬유·봉제제품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최대 시장으로 하며 일본, 한국, 중국, 영국 지역으로의 수출이 전체 80% 수준을 차지함.

- 현재 중국 내에서 노동집약형 의류산업 유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노무 이슈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의류, 봉제 제조사들은 중국을 떠나 대체 투자 국가를 고려. 여전히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섬유·봉제산업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이들 동남아시아 경쟁국에서도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필리핀의 섬유산업 환경이 재조명을 받고 있음.
- 필리핀 섬유산업은 여러 차례 부침을 겪으면서 업스트림,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 등³⁾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의 발전은 더딘 편으로 주로 다운스트림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원천 기술 확보, 대규모 자본 투자가 중요한 업스트림과 미들스트림에서는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운스트림 내에서도 가공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국내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여 수입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음. 봉제산업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까지 국내 자본의 집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업스트림 및 미들스트림 분야에 투자가 시작되기 시작할 무렵 바로 쿼터제의 폐지로 전체 수출 규모가 축소되어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 발전이 이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표 2] 필리핀 의류제품 연간 수출입 금액 변화 (1991~2018년)

출처: 지속가능발전협회(SSX, *Sustainability.ph*)

- 필리핀 섬유·봉제산업은 한국과 오랜 기간 교류해왔으며 현재에도 OEM 의류 수출 공장을 중심으로 한국계 회사가 다수 진출해 있음.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섬유산업계가 한국 내 인건비 상승의 여파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적극 진출을 꾀하였으며 당시 필리핀에서도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집약적인 섬유분야에서 산업화가 시작되었음.

2. 필리핀 정부 섬유·봉제산업 지원 현황

- 섬유산업은 2000년대 초반 전체 필리핀 국내 제조업 내에서 30~40% 이상의 고용 인원을 차지하면서 실업률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는 섬유·봉제산업의 재부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 필리핀은 경제규모에 비하여 서비스업의 비중과 해외필리핀노동자(OFW, *Overseas*

3) 업스트림(*Upstream*, 원재료를 생산하는 면방, 화섬, 섬유업체), 미들스트림(*Middle Stream*, 직물, 염색, 가공업체) 다운스트림(*Down Stream*, 의류 완성 제품을 생산하는 봉제업체)

Filipino Worker)들의 급여 본국 송금에 대한 의존도⁴⁾가 지나치게 높은 편으로 정부는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수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봉제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필리핀 상공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2019년 12월 필리핀 섬유·봉제산업 발전 로드맵(Textile-Garment Industry Roadmap 2020~2029)을 발표하였음. 2019년 필리핀 의회는 크리에이트법(CREATE Act)⁵⁾ 제정을 통과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시행. 크리에이트법은 법인세 인하를 비롯하여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 섬유·봉제산업의 필리핀 국내 유치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순번	구분	달성 목표	달성 방안
1	단기 전략 (2020~2022 년)	- 천연합성 섬유 생산량 5~10% 증가, 3~5% 수출 증가, 탑 20 봉제 수출국가 진입, 연간 12.3% 섬유봉제 제품 수출 증가 달성	- 엄격한 법(RA4653) 집행을 통한 우깨이우깨이 근절 - 섬유산업 관련 원부자재, 기계류 구매에 대한 세제 및 금융 혜택 제공 - 혁신적인 기술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2	중기 전략 (2023~2025 년)	- 천연합성 섬유 생산량 10% 이상 증가, 전세계 탑 15 봉제 수출국가 진입, 연간 21.7% 섬유 봉제 제품 수출 증가 달성	- 업·미들·다운 스트림 동반 성장 - 생산성 증대 - 수출 시장 다변화 - 경쟁력 있는 산업 클러스터 확보
3	장기 전략 (2026~2029 년)	- 전 세계 탑 10 봉제 수출국가 진입, 연간 45.8% 섬유 봉제 제품 수출 증가 달성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범용성 높은 의류·패션브랜드 배출 - OBM 전환 - 섬유·봉제산업 동반 성장 - 물류 인프라 개선

[표 3] 필리핀 섬유·봉제산업 발전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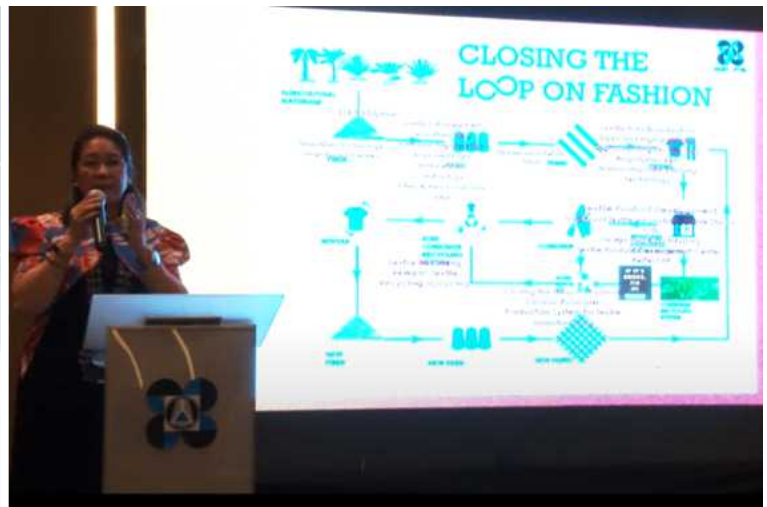
출처: 필리핀 상공부 <The Roadmap to Revival & Enhanced Competitiveness>

- 전체 섬유·봉제산업 로드맵은 단기(2020~2022년), 중기(2023~2025년), 장기(2026~2029년)으로 구성. 단기에는 섬유·봉제산업 R&D 투자와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하여 전반적인 봉제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기에는 설비와 물류 투자를 통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산업을 이어주는 인프라 건설을 계획. 최종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필리핀 고유의 패션 브랜드 구축을 그 목표로 하고 있음.

4) 2019년 OFW의 자국 송금액은 351억 달러(약 43조 8,75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필리핀 GDP 9.8%를 기록

5) Corporate Recover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2021년 3월 필리핀 대통령이 서명하였으며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

- 과학기술부(DOST,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의 필리핀섬유개발원(*Philippine Textile Research Institute*)은 국내 섬유 및 패션산업 연구 개발을 위해 1964년 설립된 국립연구기관으로 신규 섬유개발, 민간기업 기술 이전, 국내 섬유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업무 담당. 필리핀섬유산업개발센터(PhilFIDA, *Philippine Fiber Industry Development Authority*)는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에서 아바카(*Abaca*), 대마, 마닐라코튼 등의 육종 개발, 연구, 해외 판매를 담당. 필리핀산 아바카는 특유의 내구력으로 인해 전 세계 아바카 시장의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억 달러(약 1,310억 원) 이상을 해외로 수출함.
- 필리핀에서는 2004년 제정된 필리핀섬유법(RA 9242, *Philippine Tropical Fabrics Law*)을 통해 필리핀 국내에서 생산된 원사를 사용하여 직조 및 편물된 섬유를 필리핀섬유(PTF, *Philippine Tropical Fabric*)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급 공무원 제복의 필리핀섬유 사용 의무화 등 국내 섬유 산업의 진흥을 명시하고 있음. 필리핀섬유개발원에서는 바나나, 파인애플, 마닐라삼 등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필리핀섬유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필리핀잠사의 개량을 통해 국내 섬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그림 1] 2020 필리핀 섬유개발 비전 학회 포스터(좌), 과학기술부 필리핀 섬유산업 학회 발표(우)
출처: 필리핀섬유개발원 홈페이지(ptri.odst.gov.ph)

- 필리핀섬유개발원은 라조로렐(*Rajo Laurel*), JC분디아(*JC Buendia*), 바지라모스(*Barge Ramos*), PJ아라나도(*PJ Aranador*), 패트리스라모스(*Patrice Ramos*), 알버트안드라다(*Albert Andrada*) 등 필리핀을 대표하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과 함께 총 108개에 이르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들의 공무원 제복 디자인 진행.
- 패션산업 관련 국내 단체는 주로 해외 수출을 담당하는 산업단체를 중심으로 형성. 필리핀봉제 산업협회(GBAP, *Garment Busines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필리핀봉제수출업자 협의회(CONGEP, *Confederation of Garment Exporters of the Philippines*), 필리핀섬유업체 연합회(TMAP, *Textile Mill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의류해외바이어 협회(FOBAP, *Foreign Buy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등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
- 약 50 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섬유·봉제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화학·섬유·봉제분야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활동. 섬유·의류·신발·피혁산업노동조합(TF2-FFW, *Trade Federation on Garments, Textile, Footwear, Plastic, Leather and Allied Industries*), 섬유·봉제노동조합(ALU-Textile, *Associated Textile, Garments and Allied Workers Union*)이 섬유패션 생산업계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



[그림 2] 마닐라섬으로 만든 필리핀섬유(PTF) 마스크(좌), PTF이용 필리핀국립박물관 업무용 제복(우)
출처: 필리핀국립박물관 공식 SNS(@nationalmuseumofthephilippines)

2 2022년 필리핀 패션시장 개요



1. 필리핀 패션시장 개요

- 2022년 필리핀 패션시장은 약 20억 달러(약 2조 6,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 21.51%씩 성장하면서 2025년에는 36억 2,400만 달러(약 4조 7,474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의류 부문 매출이 필리핀 패션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액세서리, 신발류로 나타나고 있음. 액세서리 카테고리의 2022년 필리핀 매출은 전체 약 9억 9,700만 달러(약 1조 3,060억 원)로 전망되며 2025년까지 17억 8,500만 달러(약 2조 3,383억 원) 크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2010년 이후 글로벌 시장의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이 필리핀에 진출하면서 의류 수입액이 크게 증가. 글로벌 패션시장이 저가의 패스트패션 브랜드 경쟁으로 개편되면서 자라(Zara), 유니클로(Uniqlo), 포에버21(Forever21), H&M 등의 해외 유명 브랜드가 필리핀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으며 의류 가격 면에서도 필리핀 중산층의 구매를 끌어내면서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매장의 확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유니클로는 필리핀 전역에 67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

- 글로벌 패스트패션 브랜드가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기 이전부터 활동하던 국내 패션 브랜드들도 디자인 주기를 짧게 가져가면서 성공적으로 패스트패션 브랜드화하고 있음. 펜숍(*Penshoppe*), 벤치(*Bench*)는 국내 의류 대기업의 국내 브랜드로 1980년대 출시하여 필리핀 현지인들의 디자인 감각을 반영하면서 같이 성장. 필리핀 로컬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은 해외근로자(*OFW, Overseas Filipino Workers*)의 중동국가 진출과 함께 중동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동남아시아인들의 체격과 디자인 감각을 의류에 잘 반영하여 인기를 얻고 있음.



[그림 3] 필리핀 패스트패션 브랜드와 협업하는 한국 셀러브리티 광고

출처: 펜숍·벤치 공식홈페이지

- 필리핀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은 한류 모델을 브랜드 전면에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성장. 매년 새로운 패션라인이 출시될 때마다 그에 맞는 한류 모델을 발탁하여 협업하고 있어 패션을 선도하는 이미지를 잘 전달하고 있음. 벤치는 특히 연도별로 한국의 한류스타를 기용하면서 벤치 한국 오빠(*Oppa*)로 까지 불리며 관심을 얻고 있으며 이민호(2012년, 2014~2016년 시즌), 슈퍼주니어 최시원, 이동해(2012년), 2PM 닉쿤(2013년), 박신혜(2017년), 박형식(2019년), 박서준(2019년), 지창욱(2020년), 트와이스(2019년), 현빈(2020년), 변우석(2020년), 김수현(2020년), 위하준(2022년)과 협업.
- 위하준의 경우 필리핀에서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높은 인기를 반영하여 동 드라마 내 본인이 연기 하였던 유사한 장면과 함께 데님게임(*Denim Game*)으로 이미지 광고하면서 좋은 반응. 펜숍 또한 수많은 한국 셀러브리티들과 함께 자사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으며 남주혁(2018년), 지수(2020년), 블랙핑크 리사(2021년), 차은우(2021년), 한소희(2022년), 송강(2022년), NCT드림(2022년) 등이 광고 모델로 활동.
- 필리핀패션위크(PhFW, *Philippine Fashion Week*)가 필리핀 패션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패션쇼로서 연중 가장 길게 열리면서 국내 패션 트렌드에 많은 영향. 수도 마닐라에서 격년제로 5월과 10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추운 계절이 없는 필리핀의 자연환경을 반영하여 홀리데이 컬렉션, 여름 컬렉션을 그 주제로 하고 있음.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그 권위가 인정받고 있으며 필리핀 대기업의 스폰서십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 패션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디자이너 중에서 주요 브랜드로 성장한 업체가 다수.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섬유산업개발센터(PhilFIDA)가 필리핀패션위크에 공식 참여하여 디자이너들

과 협업 중.

2. 필리핀 전통 패션의 발전

- 필리핀 패션스타일은 문화적으로는 토착 원주민, 스페인 및 미국의 식민 지배의 영향에 따라 형성되어 왔으며 지리적으로 열대해양성기후에 따라 덥고 습한 기후에 적응. 현대 필리핀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의상 양식은 더운 기후에 손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티셔츠와 청바지임.
- 20세기를 전후로 문화적인 영향력이 스페인과 미국으로 나뉘기 때문에 패션스타일에서도 그 영향이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음. 20세기 전에는 마닐라가 스페인령 동인도(*Spanish East Indies*)의⁶⁾ 정청 소재지가 되면서 스페인의 직할 통치령이 되어 스페인 문화가 양적 질적으로 더욱 크게 유입. 필리핀 전통의상인 바롱에도 세부적인 디자인에 영향을 주어 스페인풍의 마리아클라라가운(*Maria Clara Gown*)을 탄생하게 하였으며 현대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음.



[그림 4] 공식석상에서 자주 이용되는 전통의상 바롱타갈로그(*Barong Tagalog*)

출처: 필리핀전대통령공식 소셜미디어

- 미국 식민 시대를 거치면서 필리핀의 의류 패션은 실용적이고 모던한 현재의 스타일과 가깝게 변화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필리핀 여성들이 국제 미인대회에서 다수의 우승자를 배출하면서 아시아 패션 선도국가의 이미지를 구축. 미국과의 가까운 교류 관계로 인해 서구의 패션이 빠르게 필리핀으로 유입될 수 있었으며 1960년대 미니스커트 유행, 1970년대 히피 패션 또한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소비.
- 히피 문화의 유행과 함께 민족주의도 같이 커지면서 바롱타갈로그와 같은 전통 의상에 대한 주목도도 같이 상승. 2000년대에는 경제력 상승과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 표출과 함께 제제몬(*Jejemon*)이라고 불리는 서브컬처가 유행하였으며 큰 사이즈의 셔츠, 대형 로고 표기 등의 패션코드로도

6) 스페인 제국이 1565년에서 1898년까지 영유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식민지. 동 지역을 다스리는 식민지 정청은 멕시코에 소재 하였으나 1821년 이후 마닐라로 이관.

발현.

- 2010년대 이후로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메인스트림의 특정 패션 코드가 전체를 아우르기보다는 개개인의 서로 다른 패션스타일이 각기 유행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2000년 이후에는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면서⁷⁾ 구매력 자체가 높아지고, 대형 쇼핑몰이 더욱 많이 세워지면서 의류, 패션 액세서리 소비가 크게 증가. 과거에는 구매력이 낮았기 때문에 의류에 대한 지출이 티셔츠·청바지 같은 필수품 구매 영역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구매 아이템들이 훨씬 다양해지는 경향.
- 타갈로그 지역(바탕가스, 라구나, 퀘존 인근 지역의 전통 의상에서 비롯한 바롱타갈로그(*Barong Tagalog*)는 필리핀 사람들이 공식석상에서 착용하는 의상으로 남성의 경우 바롱타갈로그, 여성은 바롯사야(*Barot Saya*)로 지칭. 와이셔츠와 비슷한 스타일을 띄고 있지만 바롱에는 속이 비치는 얇은 원단이 사용되기 때문에 내부에 받쳐 입는 흰색 셔츠의 착용이 필요하며 바롱 밑단은 바지에 넣지 않고 밖으로 내어 입는 형태.
- 이러한 형태의 의복은 무더운 기후의 동남아시아 전통의상의 공통된 양식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폭넓게 찾아볼 수 있음. 초기 바롱 의상은 피나(*Pina*,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섬유) 또는 마닐라삼으로 수제 제작하였으나 현재에는 생산성의 문제로 다양한 직물을 이용하여 생산.



[그림 5] 다야한 형태의 번털 모자 (2019년 발리엑 번털햇 페스티벌)

출처: 크리에이티브커먼

- 20세기 초 미국의 식민지배 경험 및 서구의 영향으로 바롱 의상은 전근대적인 양식으로 취급되면서 공식석상에서도 거의 자취를 감추었음. 이후 1950년대 라몬 막사이사이(*Ramon Magsaysay*) 대통령이나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대통령이 일상생활 및 공식활동에서 바롱을 착용하는 모습이 일반에 자주 노출되면서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바롱의 날을 지정. 현재 바롱은 국가 기관의 제복, 민간기업의 유니폼, 학교 교복 등 공식적인 의상으로 착용되며 일상생활에서도 결혼식을 포함한 각종 예식, 중요 미팅 등에 다방면으로 활용.

7) 아시아개발은행은 2022년 필리핀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 1999~2022년 사이 필리핀 평균 경제성장률은 5.9% 기록(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2020년 상반기에 -16.6% 기록)

- 현대에는 합성 섬유 및 기계 자수를 사용하면서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색상도 다양화. 패션 브랜드에서도 바롱 모티브를 활용하여 모던한 디자인의 의류를 출시하고 있으며 중저가 바롱 전문 브랜드, 온라인 판매 등 유통 경로도 다양화되고 있음.
- 필리핀 전통 패션 아이템 가운데 번탈(*Bunta*) 모자가 바랑따갈로그와 함께 사용되면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음. 번탈모자는 야자수잎에서 추출한 재료로 제작하여 처음에는 농부들이 햇빛을 가리기 위해 사용된 모자였으나 차츰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도 사용하게 되었으며 재료의 우수성과 함께 모자의 질이 해외 시장에도 알려지면서 20세기 전반에는 해외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 1970년대 이후 화학 섬유를 활용한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번탈모자가 유행하면서 국내외 시장을 대체하면서 필리핀의 번탈모자 생산은 급감. 여러 가지 형태의 번탈모자는 여전히 필리핀의 전통문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해외근로자(OFW)의 해외 진출과 함께 각지의 필리피노 커뮤니티에서 사용.

3. 필리핀 중고의류시장: 우카이우카이

- 필리핀 전역에는 우카이우카이(*Ukay-Ukay*)⁸⁾ 또는 웨웨겐(*Wagwagan*)으로 불리는 중고의류, 가방, 신발 및 각종 패션 액세서리 거래소가 크게 유행. 1980년대 초 필리핀 구세군을 통해 해외 각지에서 중고 제품을 기부받아 필리핀 국내에 반입된 이후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제를 위하여 이용되어왔으나 점차 용도가 변질되어⁹⁾ 상업적인 판매를 위한 중고의류 판매 가게로 정착.



[그림 6] 2020년 필리핀 까가안데오로(CDO, Cagayan de Oro) 세관에 압수된 한국산 중고의류
출처: 필리핀세관홈페이지(www.https://customs.gov.ph/)

- 우카이우카이 가게에서 유통되는 아이템들은 주로 북미 또는 유럽에서 무료로 기부된 제품들로 물류 비용 이외에는 원가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도 일반적인 티셔츠의 경우 최저 20 필리핀 페소(약 460원)로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매우 저렴한 편. 필리핀 국내 의류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의류들은 우카이우카이 중고제품들과 가격 경쟁이 불가능하며 중고

8) 따갈로그어 홀루카이(*Halukay*, 뒤지다. 후버파다)에서 유래

9) 중고의류는 연방법(RA4653)에 의해 국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

의류 시장이 커지면서 중상류층들도 해외 브랜드의 제품을 우까이우까이 매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등 국내 의류 시장의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 루존섬 중부에 위치한 바기오(*Baguio*) 지역의 중고의류 시장이 최대 규모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 판매되는 우까이우까이 의류 상품 또한 대부분 바기오 지역을 거쳐 유통.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이 형성되면서 전국에 유통망을 확보해 왔으며 저가 의류는 중고의류 시장을 통하여 구매한다는 인식이 깊게 형성되어 있어 필리핀 의류패션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며 상공부의 섬유·봉제산업 발전 로드맵에서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김영수 센터장	+62-21-2256-2396	yskim@kocca.kr
주윤지 차장	+62-21-2256-2396	juliajoo@kocca.kr

필리핀 콘텐츠 산업동향

2022년 03호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수 김영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장 주윤지 차장

집필자 신진세 대표 (PT. EPIN)
이수연 과장 (PT. EPIN)

발행인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발행일 2022년 8월 10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홈페이지 www.kocca.kr

ISSN 2733-5798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